Sabic, 자동차용 PC 글레이징 강화

Sabic Innovative Plastics의 Exatec과 ULVAC은 내후성과 긁힘 방지 성능이 뛰어난 자동차 창문용 플라즈마 코팅 Lexan PC(Polycarbonate) 레진을 경제적으로 대량 생산하기 위한 협력을 체결했다.

특히, ULVAC는 대형 진공장비 분야의 전문성과 Exatec의 플라즈마 코팅기술을 활용하는 턴키 대량 생산 시스템을 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기업들은 무거운 유리창을 Lexan PC 글레이징으로 대체함으로써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감축하는 동시에 부품 통합을 통해 보다 설계 자유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Sabic은 내구성이 강한 마모방지 코팅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가전제품 등으로 적용범위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Dominic McMahon Exatec 대표는“플라즈마 코팅 Lexan PC 글레이징을 사용하면 자동차 등의 중량을 줄일 수 있다”며“기술 검증이 마무리돼 ULVAC과 협력을 통해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Greg Adams Sabic Innovative Plastics 자동차 부문 부사장은“글레이징 구성제품의 중량을 줄이면서 자동차 설계의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소재가 필수적”이라며“수년간 Exatec 코팅과 Lexan은 혁신적인 OEM을 통해 생산된 수많은 기술을 자동차에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0/8/2 · 9>